

## 봄의 전령사 진달래

이 호 준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우리나라는 22만km<sup>2</sup>에 불과하지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약 4,500여종의 많은 식물이 자라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은 자라고 있는 환경조건에 따라서 제 각각 꽃피는 계절을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12월 말경부터 그 다음해 4월까지 피는 동백나무가 있는가 하면 눈과 얼음이 녹지도 않은 2월 계곡의 물가에서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피는 버들강아지, 2월 중순경 남녘땅에서부터 피기 시작하는 매화, 산수유의 꽃소식, 3월부터 피기 시작하는 벚꽃의 소식이 북녘으로 전해진다. 또 순금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복수초, 꽃 내부의 꽃차례가 부처의 앉아 있는 모양과 비슷한 앉은부채를 비롯해서 노루귀, 제비꽃, 현호색, 앵초, 산피불주머니, 얼레지, 바람꽃, 피나물 등 많은 봄꽃 식물들은 나무 잎이 활짝 피기 전에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햇볕을 이용하기 위해 피는 것으로 자기들 나뭇대로의 생존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뒤를 이어 4-5월에 피기 시작하는 진달래, 개나리, 철쭉을 비롯해서 여름, 가을에 걸쳐 피면서 계절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꽃들은 너무나 많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은 진달래, 철쭉, 개나리만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진달래, 철쭉, 개나리는 우리나라의 모든 산과 들을 붉게, 노랑게 물들이고 겨울잠에서 깨어난 모든 생명체에게 활기를 부어주며 생동감에 넘치게 한다. 진달래(사진1)는 참꽃나무, 두견화, 홍두견, 백두견, 영홍두견, 영산홍, 백화두견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 참꽃나무라고

하는 이름은 진달래의 꽃잎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두견화는 촉나라 왕 두우에서 유래된 것이고, 진달래의 꽃 색이 붉기 때문에 홍두견, 흰색의 꽃을 피우는 것을 백두견, 백화두견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지만 영산홍은 주로 일본산이기 때문에 진달래를 영산홍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강원도나 경남지방에서는 진달래를 참꽃나무, 백두견이라고 부르고 있다.

나는 봄꽃 식물 중에서 특히 진달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때는 진달래를 무궁화대신 우리나라 국화로 지정하자는 주장도 한 적이 있다. 무궁화도 우리나라 국화로서 손색이 없지만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진딧물에 약하고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단일민족성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었다. 사실 수많은 종류의 무궁화가 전부 우리나라 국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박정희 대통령 정권 당시 모대학 교수가 진달래를 우리나라 국화로 정하자고 주장하다가 검찰에 입건되어 고생한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한다. 하기야 박정희 대통령 정권 당시에는 진달래가 북한의 국화였고 용공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이유에서였다.

담홍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진달래는 청아하게도 보이고 우리민족의 수난사 중에서도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붉게 물들이면서 우리 땅을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꽃이 아닌가? 진달래는 금년에도 어김없이 봄을 알리는 전령사로서 우리 모두의 주변에 다가올 것을 생각하면서 진달래 꽃피기를 기다려 본다.

## 1. 진달래의 종류와 생김새

진달래는 진달래과(Ericaceae, 또는 철쭉과)에 속하며 전세계적으로 125여속 3,000여종이 온대, 한대, 아열대, 열대사막지역 등에 분포하며 진달래속(Rhododendron)은 600-800여 종류가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변종, 품종을 포함해서 10여속 30여 종류가 자라고 있다. 이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달래와 철쭉이다. 우리나라에 주로 자라고 있는 진달래는



사진 1. 진달래(미시령)



사진 2. 설악산 대청봉의 멀진달래와 눈잣나무 군락

여러 종류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꽃이 백색인 흰진달래, 잔가지와 잎가장자리, 입자루에 털이 있는 털진달래(설악산 대청봉에 자란다, 사진2), 잎이 유난히 큰 왕진달래, 잎의 표면이 반들반들하며 광택이 나는 반들진달래, 열매가 가늘고 긴 한라산진달래(한라산에서 자란다) 등을 볼 수 있다. 철쭉은 지방에 따라 옥지, 천죽꽃, 철дук, 철지, 척촉, 체지꽃 등으로 불리고 있다. 진달래와 철쭉은 사촌지간으로 두 종의 차이점은 개화시기가 다른 것이다. 진달래는 잎이 피기 전에 꽃이 먼저피고 철쭉은 잎이 핀 후 또는 잎과 함께 꽃이 핀다. 철쭉꽃잎은 독이 있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개꽃이라고도 하며 철쭉 종류에는 흰철쭉(사진 3), 산철쭉 등이 있다.

진달래의 영명은 Korean rosebay이며 학명은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로 속명인 *Rhododendron*은 rhoden(장미)과 dendron(나무)의 합성어로 꽃이 장미꽃 같이 붉고 아름다운 나무라는 뜻이며 종소명인 *mucronulatum*은 잎의 양끝이 뾰족하다는 뜻이다. 진달래는 높고 낮은 산과 들의 양지바른 곳에 주로 자라는 낙엽성 키작은 나무다. 내한성과 새롭게 싹트는 힘(맹아력)이 강하고 줄기에서 많은 가지를 치며 높이는 약 1~3m로 나무의 모양은 원형 또는 타원형에 가깝다. 나무의 껍질은 잿빛밤색에 가까우며 잔가지는 연녹색 또는 연한 갈색을 띤다. 잎의 끝은 뾰족하며 타원형에 가깝다. 잎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없으며 밋밋하고 어긋난다. 잎의 앞면은 녹색이며 사마귀 같은 비늘이 있고 뒷면은 옅은 녹색이다. 꽃은 봄에 잎이 피기 전에 먼저 피는데 이런것을 엽전개화라고 한다. 가지 끝에 1~3개의 붉은 꽃송이가 모여서 달리고 꽃잎의 끝은 5갈래로 갈라지며 갈때기 모양을 하고 있다. 수술은 10개인데 밑 부분에 털이 있으며 암술은 수술보다 길다. 열매는 고깔 모양으로 타원형에 가까우며 봉선에 따라 터지며 열매 끝이 5조각으로 벌어지고 10월에 성숙한다. 특히 고지대에 자라고 있는 진달래들은 잎 표면에 큐티쿨라층이 발달하고 두터우며 잎 뒷면에 부드러운 털이 있는 경우도



사진 3. 흰철쭉 (설악산 미시령)

있다. 자라고 있는 환경조건에 따라 꽃의 색깔에도 차이가 있다. 낮은 산야의 양지바른 곳이나 산꼭대기 부근에서 피는 것들은 진붉은 색의 꽃을 피우는 것이 많으며 그늘에서 피는 진달래는 대부분 연분홍색의 꽃을 피운다.

## 2. 진달래의 분포와 서식지 환경

어떤 사람들은 소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볕을 받으며, 또는 나뭇잎이 피기 전에 앙상한 나뭇가지만 달고 있는 큰키나무 아래에 드문드문 홀로 피어 있는 진달래와 철쭉꽃을 보면 그 나뭇대로의 아름다움과 청아함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진달래와 철쭉은 무리를 지어 큰 군락을 이루고 붉은 빛으로 산야를 물들일 때 더 탐스럽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진달래와 철쭉은 우리나라 산야 방방곡곡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일

반적으로 진달래는 서식지의 토양은 가리지 않는 편이지만 석회암지대나 건조한 곳은 싫어하며 양지바르고 따뜻한 곳, 서늘한 곳, 습도가 적당한 곳, 모래가 섞여 있는 땅, 산성토양을 좋아한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덕유산 같은 높은 산을 비롯해서 절벽바위, 산간계곡, 음지, 산지초원, 황폐지, 비옥지 등 안자라는 곳이 없으며 꽃피는 시기도 자라는 곳의 환경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진달래의 분포면적이 광범위 하다는 것은 서식지환경에 대한 적응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달래는 천근성 식물로 지표면의 온도가 낮은 곳이 좋다.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지표면 가까이 퍼지기 때문에 지표면의 온도가 높을 때에는 적응하기가 힘들다. 산지초원에 진달래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산지초원이 지표면의 건조를 막아주기도 하고 여름철 지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 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낙엽활엽수림의 식생이 파괴되면 그 뒤를 이어 그 자리에 소나무 숲이 형성되고 이 소나무 숲은 산성토양으로 변하고 여기에 진달래 군락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곳은 척박한 토양이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땅이 험벗고 척박했기 때문에 진달래와 철쭉이 많이 자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생물사회에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다.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서로 좋아하는 것끼리 같이 모여 산다는 뜻이다. 식물에도 유유상종하는 것들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소나무와 진달래다. 대부분의 소나무 숲을 보면 소나무와 친근관계에 있는 식물만이 소나무 밑에서 자란다. 그 이유는 소나무 앞에서 원격작용물질(Allelochemicals)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분비되어 빗물에 녹아 땅으로 흘러내리는데 이 화학물질에 의해 생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들은 소나무 밑에서 자랄 수 있고 억제 받는 것들은 자라지 못한다. 진달래의 경우 소나무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에 의해



생장에 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소나무 밑에서 군락을 이루어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사진 4). 신갈나무 밑에서 진달래가 짝을 이루어 자라고 있는 것도 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진달래는 서식환경에 적응하는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산야에서 진달래의 큰 군락지를 발견할 수 있으며 진달래의 지상천국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진달래 군락지가 도처에 있으나 사람들에게 알려진 진달래 군락지는 많은 것 같지 않다. 비슬산, 영취산, 명지산, 무학산, 칠갑산, 대금산, 화왕산, 남산, 화악산, 대둔산, 설악산, 치악산, 서운산, 삼악산, 천관산, 고려산, 축령산, 비음산 등 많은 곳에서 진달래 군락지를 볼 수 있다. 특히 영취산, 무학산, 화왕산, 비슬산은 4대 진달래 명산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는 진달래 군락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진달래 군락들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진달래 군락지에서는 진달래가 만개하는 5월부터 6월초까



사진 4. 소나무 밑에 꽃피어 있는 진달래 군락

지 어김없이 여러 가지 행사를 곁들인 진달래 축제가 열리고 있다. 진달래 꽃길 걷기 행사라든지 산신제, 산상음악회, 풍물공연, 진달래 사진전 등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지역문화를 알리는 진달래 축제가 열리고 있다. 민속행사로 자리 잡기를 기원해 보지만 참가자들의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진달래 군락이 파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 3. 철부지 진달래꽃

오래전부터 계절감을 잃은 동식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TV보도에 의하면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곰이 겨울잠을 자야하는데 겨울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먹이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개구리나 뱀도 겨울잠 자는 시기가 바뀌고 있다. 최근 사람들의 행동양식도 이상하게 바뀌어가고 있다. 이 모든 현상들이 계절감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식물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나는 10여년 전부터 진달래꽃이 정상이 아니고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관찰해 오고 있다.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초겨울사이의 양지바른 따사한 곳에서 꽃 피우는 진달래의 수가 점점 증가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주로 인가근처의 양지바른 곳에 자라는 개나리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철쭉, 벚꽃, 배꽃, 사과꽃에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재개화(Reflorescence)라고 한다. 아마도 늦가을부터 초겨울 사이의 따사한 환경이 진달래가 꽃피는 4월 봄의 꽃필 시기와 비슷한 것으로 착각하고 꽃을 피우지 않아야 할 시기에 꽃을 피우는 것이다. 봄에 꽃이 피고 난 다음 여름을 거치면서 그 다음해 봄에 피울 꽃눈이 형성되는데 가을부터 초겨울의 날씨가 봄날 같이 따뜻하게 여러 날 계속되면 이미 형성된 꽃눈의 일부가 온도의 자극을 받아 계절감을 잃어버리고 미리 꽃이 피는 것으로 생각된다. 계절감을 느끼지 못하고 꽃을 피운다는 의미에서 “철부지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그러나 어떤 것은 가지나 잎을 자르거나 상처를 주면 이 자극 때문에 꽃눈이 갑자기 발달



해서 꽃이 미리 피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이 계절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돌은 사람이다” 또는 “정신 나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한다. 진달래나 개나리도 미쳐서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일런지 모른다. 그러나 이 현상을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 하기 보다는 진달래나 개나리의 꽃잎이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건디어 내는 강인함과 인내성을 이들 꽃들로부터 배워야 하지 않을까? 온난화 현상에 의한 기후변화가 지구의 큰 재앙을 예고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생각도 가져본다.

#### 4. 진달래와 생활문화

진달래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민족의 사랑을 받아오면서 이 땅을 지키고 우리들 생활문화를 창출해 왔기 때문에 진달래에 얽힌 전설을 비롯해서 민속놀이, 노래, 시, 문학작품의 소재로서 많이 사용되어 왔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라고 하는 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김소월의 작품이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 북한 영변은 핵시설기지로 잘 알려져 있다. 아직도 그 유명한 진달래꽃을 볼 수 있을런지?

“붉어진 두 볼이 너무나 예뻐서 작은 진달래 같다 했죠”로 이어지는 이소은의 진달래, “길가엔 진달래 몇 뿌리 꽃피어 있고”의 신동엽의 진달래를 비롯해서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고”의 가곡은 너무나 잘 알려진 곡일 뿐 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의해 불려지고 있다.

삼국유사에 보면 현화가라는 노래가 나온다. 신라 33대 성덕왕 때의 일이다. 꽃과 같이 아름답고 마음씨도 착한 수로(水路)부인이 강릉 태수로 부임해 가는 남편 순정공(純正公)을 따라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 하루 길도 아니고 여러 날 걸리는 먼 거리였기 때문에 가던 도중에 길가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그곳은 절벽바위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절벽바위 위에 보기에 도 탐스러운 진달래꽃이 피어 있었다. 수로 부인은 이 꽃

에 반해 같이 가던 사람들로 하여금 이 꽃을 꺾어 오라고 하였으나 바위 절벽위에 꽃이 피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이때 어떤 노인이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수로 부인의 말을 듣고 험한 절벽바위 위에 기어 올라가 꽃을 꺾어 수로 부인에게 주면서 “붉은 꽃핀 바윗가에 암소를 끌고 온 노인이 부끄럽지 않으시거든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라고 하는 노래까지 읊었다고 한다. 이 노래가 현화가이다. 이 노래는 천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진달래꽃과 함께 전해 내려오고 있다.

“두견새의 토한 피 때문에 산 계곡의 진달래꽃이 붉게 물들었다.”라는 단종의 두견새 시도 있다. 단종이 권력에서 밀려나 청령포로 쫓겨난 후한에 맺혀 궁궐을 회상하면서 지은 시다.

이와 같이 노래, 시 뿐만 아니라 진달래에 얽힌 전설과 민속놀이도 있다. 연분홍색의 진달래 꽃잎을 따서 먹으면 약간의 신맛과 단맛을 느낄 수 있으며 입안에서 녹아버리는 기분이 든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진달래꽃이 활짝 피는 음력 3월 3일에 진달래꽃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봄맞이 꽃놀이를 했다. 그 중의 하나가 화전놀이(꽃전놀이라고도 함)다. 그 전 해에 빚어 두었던 두견주를 마시면서 춤도 추고, 노래하며 흥겹게 놀던 일종의 봄맞이 풍유놀이의 하나다. 이와 같이 진달래꽃을 먹는 풍습은 봄의 기운을 받아들이면 봄의 춘곤증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진달래를 두견화라고도 한다. 중국 촉나라 때의 일이다. 촉나라 왕 망제의 이름이 두우인데 두우는 나라가 망한 후 신하인 별령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고 멀리 도망해 살면서 다시 왕좌에 오를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왕좌에 오르지 못하고 한이 맺혀서 죽은 뒤 두견새로 변했으며, 이 두견새는 봄만 되면 산야를 두루 돌아다니며 밤낮으로 슬피 울면서 피를 토했다고 한다. 피를 토한 자리에서 붉은 꽃이 피었는데 이 꽃이 두견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주왕산 계곡 물가에 피는 수달래라고 하는 꽃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진달래로 잘못 알고 있다. 이것은 진달래가 아니고 산철쭉이다. 산철쭉은 습기가 많은 물가에 주로 많이 핀다. 마장군의 공격을 피해서 주왕굴에 숨어 있던 주왕이 마장군의 부하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때 흘린 피가 주왕산 계곡의 물가를 흘러 계곡 주변을 붉게 물들었으며 여기서 핀 꽃을 마을 사람들은 수달래(수단화)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물가에 피기 때문에 수달래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도 수달래제를 올리고 있다.

## 5. 진달래의 쓰임새

진달래는 우리의 생활문화와 오랜 세월 같이해 오면서 식용, 약용, 관상용, 경관조성 등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다. 진달래는 한방에서 생약명으로 두견화, 영상홍, 백화영산홍으로 부르며 꽃뿐만 아니라 잎, 줄기를 약으로 사용하였고 민간에서는 뿌리도 약으로 사용하였다.

진달래 술을 두견주라고 하여 고려시대부터 사용하였다. 마르지 않은 꽃잎과 술을 섞어 만들거나 꽃이 피기 전 어린가지에 꽃망울이 맺힐 때 가지를 꺾어서 소주와 섞은 다음 차고 어두운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마셨다. 천식, 신경통, 허리냉증, 진통, 기침, 기관지, 가래삭임, 고혈압, 혈액순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꽃잎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술을 담근 후 100여일 지난 후 조금씩 마신다고 한다. 고구려 때 복지검 장군이 병 때문에 충남 당진에서 휴양을 하고 있을 때 복지검의 17세 된 딸이 꿈속에서 신선의 지시를 받고 빛은 술이 두견주인데 복지검이 이 술을 마시고 병이 나았다는 전설도 있다.

건조한 진달래의 잎을 달여서 차 대용으로 마시고 잎과 줄기도 민간에서 고혈압, 진통, 신경통, 타박상의 어혈을 푸는데 사용했다고 한다. 건조시킨 꽃은 가루를 내어 꿀과 쌀가루를 혼합하여 환으로 만든 다음 식후에 복용해도 효과가 있으며 봄철에 나오는 어린잎과 가지를 건조시켜 달여 마셔도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음력 3월 3일 전후해서 진달래꽃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찹쌀가루를 연한 소금물로 반죽한 다음 얇게 빻은 후 진달래 꽃잎을

엿어 전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진달래 꽃잎과 녹두가루를 반죽하여 꽃국수를 만들어 먹었다. 꽃은 약간 신맛이 있어 음식에 넣어 맛을 내었으며 무쳐먹기도 했으며 꽃으로 기름을 짜고 탕을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안면도에서도 세시풍속의 하나로 3월 초사흘날 화전(꽃전)을 만들어 먹는 것은 물론 진달래꽃잎과 녹말가루를 반죽하여 화면(花麵)이나 수면(水麵)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으며 서당교육이 한창이던 때 스승과 제자들이 야외나 산에 올라가 진달래 꽃전을 부쳐 먹으며 흥겹게 봄맛이 놀이를 했다고 한다. 아이들은 진달래 꽃수술을 가지고 어느 쪽이 센가 서로 겨루어 승부를 내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민족은 조경예술에 대한 감각이 발달했던 것 같다. 문헌에 보면 고려시대부터 진달래를 조경식물로 사용했다. 경복궁의 교태전 후면의 인공 언덕인 아미산, 경복궁 후원의 향원지, 창덕궁, 홍릉의 재실담장, 수원 화성의 용릉, 조선시대 민간의 조경, 사대부 주택 등에 오래전부터 진달래와 철쭉을 조경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진달래와 철쭉은 우리나라의 조경문화 창출에 기여한 식물임이 틀림없다.

진달래 종류의 어떤 것은 나뭇결이 견고하고 조밀할 뿐만 아니라 균질해서 일본에서는 우산을 움직이는 고리세공, 양산의 자루를 만들기도 한다. 껍질은 윤치가 있어 장식기둥이나, 다실(차집)을 장식하는데 사용하였다. 작은 가지나 곁가지는 차의 대용으로, 가지나 줄기를 태운 숯은 옷칠, 금형의 연마용으로도 사용하였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아쉬운 생각과 더불어 씩씩한 생각이 든다. 꽃집을 비롯해서 순국열사가 모셔진 사당이나 국립묘지, 관광명소, 국립공원, 고찰 등 어디를 가도 일본산인 영산홍이 화려하게 피어있고 우리민족과 같이 해오면서 우리나라 땅을 지켜온 진달래나 철쭉, 산철쭉은 거의 볼 수 없고 밀려나 있다. 일본에서 개량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영산홍이나 철쭉종류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반성해 보아야 할 일이다. 진달래의 꽃말이 절개, 사랑의 기쁨이다. 진달래는 절개를 지키며 우리 산야를 지켜왔다. 이 진달래를 우리 모두 사랑할 수 있는 기쁨을 가져 보기를 희망한다.